

##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현황과 이용 후 인식

권미영\*

대구대학교

황미화\*\*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

### 《요약》

---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립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인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장애학생과 가족의 필요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D 광역시와 U 광역시 등 6개 도시에서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이용 현황과 이용 후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5년 이상 이용하였고, 일주일에 4회 이상,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부모 스스로가 신청하여 이용하였다가 많았다. 둘째,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는 변화와 도움에 대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 후 집안일의 부담감소와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증가하였고, 학생의 청결상태와 식사하기 및 외출이 증가하였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갈등에 대해 활동보조인의 간섭과 힘든 일을 꺼려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용영역에 대해 사회활동서비스와 교육과 훈련서비스의 이용이 많아서 이에 대해 필요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을 위해 만족도를 분석하고 수요자의 필요와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와 정책이 요구된다.

---

주제어 : 발달장애, 장애아부모,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인식

---

\* 제 1저자, 대구대학교 강사 (mi-young2506@hanmail.net)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박사과정 (mihwa7530@hanmail.net)

## 1. 서론

2014년 12월 3일 부산의 한 복지관 3층에서 발달장애학생이 2살 유아를 추락시킨 사건은 ‘활동보조인만 있었어도 우리 아이는 죽지 않았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파장과 함께 활동보조인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인터넷 연합뉴스, 2015. 1. 9).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과 장애인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5).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장애인 실태조사 결과(김성희 외, 2014)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수인 총 2,726,910명 중 97.04%인 2,646,064명이 재가장애인이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81.5%가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영역보다 가족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더 높았으며, 가족 이외의 타인의 도움은 활동보조인이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발달장애인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함에 있어 가족의 돌봄 기능이 중요하며, 이러한 기능수행에 대한 어려움은 가족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수행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도움과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의 시설을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필요욕구가 높다. 보건복지부(2015)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양육자가 장애인을 돌봄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가족의 지원에 대한 경감과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가족기능의 회복과 갈등 문제해결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강화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하였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2007년 4월에 시작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며, 장애인복지법상 1급에 해당하는 만 6세 이상~65세 미만인 저소득층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5년 6월부터는 3급의 장애인 까지 확대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법제처, 2014)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법제처, 2013)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바우처제도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이익섭(2007)은 수혜당사자와 가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며, 장애인이 지역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최근 10년 동안 재가장애인의 출현율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2014년 등록장애인의 실태조사(김성희 외, 2014)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 대한 재가장애인의 출현율은 5.43%이고 2005년의 4.5%에 비해서 증가하였다. 또한 중증이 대부분인

발달장애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등록장애인 중 1~3급의 중증장애는 39.1%인데, 발달장애에 속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100%가 중증장애에 속했고, 학령기의 아동에게서 출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므로 발달장애학생은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2015년 교육부의 특수교육 대상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수가 2011년 82,665명에서 2015년 88,06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학령기 학생의 수는 78,121명이며 70.4%의 학생이 일반 학교 재학 중이고 발달장애에 속하는 학생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제처, 2015)에 의하면 크게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다. 지적장애인은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으로 인하여, 자폐성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일상과 사회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아동의 출생은 가족들에게 아동의 재활과 치료, 평생의 교육과 장애에 대한 불안, 가족 간의 문제 등으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감과 변화(김상용, 2007; 김영숙, 2010; 정민정, 김유진, 2010)를 겪게 한다.

장애가족의 문제들은 장애가족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통합을 위한 사회 복지에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애아동지원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며 이로 인해 가족의 부담감은 늘어가고 있다(이지수, 2008). 특히 정민정, 김유진(2010)은 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중재, 재활과 자립을 위한 치료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사회적지원체계 속에서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패러다임도 장애인의 자립으로 전환 되어 가고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장애인을 사회적 자본의 생산이 어려운 특수성과 문제성을 가진 지원대상자로 인식(Connors & Stalker, 2003)하고 있다.

이에 이동영과 이상철(2010)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으로 개별적이며 보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며 장애아동의 경우는 장애와 아동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추가적 필요요구를 충족시켜야하는데 성인에 비해 더 많은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가족의 활동에 대한 어려움은 아동이 어릴수록, 신체장애 또는 행동문제가 중복되어 있을수록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부담감이 높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그러므로 당사자인 장애학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지원이 필요하며 중증장애에 속하는 발달장애의 아동은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의 전체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실시된 이래로 제도의 성과(이익섭, 김경미, 김동기, 2007)를 바탕으로 제공기관별로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송재숙, 정종화, 2009)를 높이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활동보조인에 대한 질적인 교육을 실시 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종엽, 양희택, 2011; 이채식, 2011; 한승호, 정동훈, 2011). 김영숙(2010)은 장애아동가족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장애인활동보조 등 가족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발달장애 학생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활동보조서비스의 확충(박종엽, 2014),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스트레스(심석순, 2013), 장애인 당사자의 자녀양육과 서비스의 욕구(김정희, 정은주, 2012)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경험과 실태(박종엽, 2013; 최병목, 2010)를 파악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효과성 및 만족도(강우진, 박경숙, 2011; 김윤수, 류호영; 2012; 이채식, 2012)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 당사자와 학부모의 인식이나 만족도에 관련하여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자의 유형과 제공기관별 만족도(양희택, 2007)등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지만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의 시행기간이 길지 않아 아직까지는 정책적인 부분이나 수요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활동보조서비스는 현재 장애인복지를 위해 장애유형을 15개로 나누고 특수교육대상자는 11개의 범주로 나누어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그리고 전체 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학생의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스스로의 생활을 만족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지원이다. 그러므로 수요자인 발달장애학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요구와 활동보조서비스이용 후의 인식 및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가족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006년 12월 UN에서 채택된 장애아동권리협약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 아동의 기본 권리보장을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과 생애전반의 지원을 하기 위해 법적인 기반을 강화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동영, 이상철, 2010). 이러한 영향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바탕으로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가족지원을 위해 국가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강화시켜야 하며 장애인당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송재숙, 정종화, 2009; 이익섭, 2007). 이에 본 연구는 발달장애가족 당사자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실태에 대한 요구와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한 기초조사이며, 현재 이용현황과 이용 후 요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의 질 향상과 장애당사자의 요구가 바탕이 되는 지원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의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후 인식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요구를 만족시키고, 실질적인 자료로 제시하기 위한 기초인식 조사로 실시하였다. 이를위해 D광역시와 U광역시 등 6개 도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발달장애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장애인 부모회와 주간보호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재활치료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 하였으며, 설문내용과 취지가 담긴 글과 함께 URL주소가 포함된 전자메일과 전자설문지 및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각 기관을 방문 하거나 기관의 종사자와 관계자 및 학부모에게 직접적으로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2회 더 설문지 등의 협조문을 발송하였고 학부모들에게 본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발송된 설문지는 잘못된 전자메일 주소로 인한 발송오류, 수신 미확인, 기재오류 등을 제외하고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320부이다. 이 중 오류가 발생하고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305부이다. 그러므로 발달장애학부모 305명으로 구성된 연구 대상의 특성은 다음 <표 1>에 제시 된 것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 구분   | 빈도      | 백분율 (%) |
|------|---------|---------|
| 성별   | 남자      | 3.3     |
|      | 여자      | 96.7    |
| 연령   | 30대     | 41.0    |
|      | 40대     | 50.5    |
|      | 50대이상   | 8.5     |
| 결혼상태 | 기혼      | 98.7    |
|      | 기타      | 1.3     |
| 학력   | 초등학교졸업  | 1.0     |
|      | 중학교졸업   | .7      |
|      | 고등학교졸업  | 9.2     |
|      | 전문대졸업   | 9.5     |
|      | 대학교졸업   | 60.3    |
|      | 대학원졸업이상 | 19.3    |

<표 1> 연구 대상자의 특성(계속)

| 구분            |             | 빈도  | 백분율(%) |      |
|---------------|-------------|-----|--------|------|
| 동거가족          | 부부+자녀       | 253 | 83.0   |      |
|               | 부모+부부+자녀    | 25  | 8.2    |      |
|               | 기타          | 27  | 8.9    |      |
| 기초생활<br>수급 여부 | 수급          | 35  | 11.5   |      |
|               | 비수급         | 270 | 88.5   |      |
| 본인의 소득활동      | 있음          | 87  | 28.5   |      |
|               | 없음          | 218 | 71.5   |      |
| 가구월평균수입       | 120만원이하     | 9   | 3.0    |      |
|               | 120-199만원사이 | 48  | 15.7   |      |
|               | 200-349만원사이 | 90  | 29.5   |      |
|               | 350-500만원사이 | 118 | 38.7   |      |
|               | 500만원이상     | 40  | 13.1   |      |
| 학생의 장애특성      | 장애등급        | 1등급 | 123    | 40.3 |
|               |             | 2등급 | 182    | 59.7 |
|               | 장애시기        | 선천적 | 246    | 80.7 |
|               |             | 후천적 | 59     | 19.3 |
| 전체            |             | 305 | 13.1   |      |

## 2. 연구 도구

<표 2> 설문지의 구성

| 구분                       | 구성내용          | 문항번호                    | 문항수 | Cronbach's $\alpha$ |
|--------------------------|---------------|-------------------------|-----|---------------------|
| 1. 기본정보                  | 1) 대상자의 정보    | I - 1~10                | 8   |                     |
|                          | 2) 학생의 장애특성   | I - 6,7                 | 2   |                     |
| 2. 활동보조<br>서비스이용<br>현황   | 1) 서비스이용시간    | II-1, 2, 3, 4           | 4   |                     |
|                          | 2) 서비스이용경로/이유 | II-5, 6                 | 2   |                     |
| 3. 활동보조<br>서비스이용 후<br>인식 | 1) 생활의 변화     | III-1~10                | 10  | .962                |
|                          | 2) 생활에 도움     | III-17~21, 24~28        | 10  |                     |
|                          | 3) 활동보조인과 갈등  | III-14, 22, 23, 29~31   | 6   |                     |
|                          | 4) 서비스이용 영역   | III- 11, 12, 13, 15, 16 | 5   |                     |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서(2011),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서(2015) 및 선행연구(최병목, 2010)를 참고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구성된 조사도구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측정했다. 설문지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첫째, 본 조사도구인 설문지의 구성은 설문대상의 기본정보(10문항), 서비스이용현황(6문항), 서비스이용 후 인식(31문항)으로 3개 범주로 나누어 총 4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중 기본정보와 서비스이용현황 의 문항은 선택형으로 구성하였고, 서비스이용 후 인식에 대한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진 응답형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지 구성은 <표 2>와 같다.

둘째, 본 연구 도구의 내적일치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였으며 사용된 문항의 신뢰도는 0.871에서 0.956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신뢰도는 0.962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0.6이상이어야 하고 0.7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본 연구 도구의 0.87이상이므로 측정개념 간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3>에 제시해 두었다.

셋째, 연구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특수교육학 전공 교수 3명 및 박사 2명에게 설문지의 요소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후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넷째, 20명의 발달장애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고유값을 기준해 구성 타당도 중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항목의 요인분석 결과 KMO(kaiser-Meyer-Olkin)는 .895로 1에 가깝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카이제곱 값은 12163.652, 자유도는 465로 유의확률은 0.000( $p < .001$ )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회전은 베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의 요인 적재 값을 산출하였으며, 모든 항목이 .40보다 높은 공통성을 보여 제거해야 할 항목은 없었다(강병서, 김계수, 2009). 이와 같은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 <표 3>           | 타당도    |        |         |        |
|-----------------|--------|--------|---------|--------|
|                 | 생활변화   | 생활도움   | 보조인과 갈등 | 서비스영역  |
| 고유값(eigenvalue) | 8.053  | 7.818  | 3.960   | 3.798  |
| 설명된 총 분산(%)     | 25.977 | 25.221 | 12.776  | 12.250 |
| 누적분산 설명비율(%)    | 25.977 | 51.198 | 63.974  | 76.224 |

KMO = .895, Bartlett  $\chi^2 = 12163.652$  ( $p < .001$ )

### 3.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설문은 2015년 2월~5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전자메일, 스마트폰 수신, 설문지 우편발송, 직접교부 등 다각도의 방법으로 회수된 320부의 설문 중 오류 등 잘못 응답되었거나 빠진 응답이 있는 설문을 제외한 305부의 설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설문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 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요소의 빈도와 백분율 및 분석에 따른 값을 구하였다. 또한 일원배치분산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검정(Scheffe)을 실시하여 각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교차분석, 독립변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해 자료를 처리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들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후 인식에 대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독립변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해 자료를 처리하였다.

셋째, 연구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분석을 통하여 Cronbach's  $\alpha$ 를 구하였고, 구인 타당성 확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원배치분산분석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검정(Scheffe)을 실시하여 각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현황

#### 1) 이용기간 및 한달 총 이용시간

첫째,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에 대해 빈도분석, 독립변인 T-검정 및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4>, <표 5>와 같다.

<표 4>

이용기간

| 이용기간    | N   | 백분율(%) | SD    |
|---------|-----|--------|-------|
| 0-3년 미만 | 98  | 32.1   | 1.085 |
| 3-6년 미만 | 59  | 19.3   |       |
| 6-8년 미만 | 103 | 33.8   |       |
| 8년 이상   | 45  | 14.8   |       |
| 합계      | 305 | 100.0  |       |

<표 5>

이용기간의 비교

| 구분   | N   | M    | SD    | T/F    | p    |
|------|-----|------|-------|--------|------|
| 1급   | 123 | 2.07 | 1.1   | -3.345 | .001 |
| 2급   | 182 | 2.48 | 1.0   |        |      |
| 선천적  | 246 | 2.50 | 1.045 | 6.854  | .000 |
| 후천적  | 59  | 1.51 | .796  |        |      |
| 수급권  | 35  | 2.46 | 1.146 | .852   | .395 |
| 비수급권 | 270 | 2.29 | 1.066 |        |      |
| 취업   | 87  | 1.74 | 0.90  | -6.270 | .000 |
| 비 취업 | 218 | 2.54 | 1.06  |        |      |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이용기간은 6년~8년 미만이 33.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0년~3년 미만도 32.1%로 나타났다. 또한 발달장애학생의 2급(M=2.48, SD=1.0)이 1급(M=2.07, SD=1.1)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선천적 장애가 이용기간이 더 길었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실시 된지 10년이 되지 않았고 실시기간이 짧아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을 의미하며, 선천적 장애의 경우 조기의 장애등록과정에서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했을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발달장애학생의 모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M=2.54, SD=1.06) 경우가 직장이 있거나 자영업 등 소득활동(M=1.74, SD=0.90)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보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한 기간이 길다고 나타났다. 이는 직업을 가진 학부모는 직업으로 인해 발달장애학생을 돌보는 시간이 짧고, 소득활동을 할 시간동안 학생을 돌봐줄 지원인력의 필요성이 높다. 하지만 활동보조서비스는 법적인 지원시간이 정해져 있어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시간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여 학생이 어릴 때는

활동보조서비스대신 가족이나 대체인력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업이나 소득활동으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한 달 총 이용한 시간에 대해 빈도분석, 독립변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6> 한 달 총 이용시간

|           | N   | 백분율(%) | SD   |
|-----------|-----|--------|------|
| 30-49시간   | 51  | 16.7   | 1.07 |
| 50-79시간   | 83  | 27.2   |      |
| 80-109시간  | 80  | 26.2   |      |
| 110-140시간 | 91  | 29.8   |      |
| 합계        | 305 | 100.0  |      |

<표 7> 이용시간의 비교

| 구분          | N   | M    | SD   | T/F    | p    | Scheffe |
|-------------|-----|------|------|--------|------|---------|
| 1급          | 123 | 2.88 | 1.18 | 2.423  | .016 |         |
| 2급          | 182 | 2.57 | 0.97 |        |      |         |
| 선천적         | 246 | 2.61 | 1.04 | -2.760 | .006 |         |
| 후천적         | 59  | 3.03 | 1.14 |        |      |         |
| 초등졸업        | 3   | 1.67 | 1.16 | 4.410  | .001 | b>a     |
| 중등졸업        | 2   | 3.00 | 1.44 |        |      |         |
| 고등졸업        | 28  | 2.43 | 1.17 |        |      |         |
| 전문대졸업       | 29  | 2.79 | 1.11 |        |      |         |
| 대학졸업(a)     | 184 | 2.57 | 1.00 |        |      |         |
| 대학원이상(b)    | 59  | 3.20 | 1.06 | 5.963  | .003 | c>d     |
| 부부+자녀(c)    | 253 | 2.76 | 1.05 |        |      |         |
| 부모+부부+자녀(d) | 25  | 2.00 | 1.00 |        |      |         |
| 기타          | 27  | 2.67 | 1.14 | 2.847  | .005 |         |
| 수급권자        | 35  | 3.17 | 1.07 |        |      |         |
| 비수급권자       | 270 | 2.63 | 1.06 | -3.644 | .000 |         |
| 취업          | 87  | 2.34 | 1.00 |        |      |         |
| 비취업         | 218 | 2.83 | 1.07 |        |      |         |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면 발달장애학생들 중 한 달 총 이용시간이 110~140시간 (29.8%)이 가장 많았고 30~49시간(16.7%)이 가장 적었다. 또한 후천적(M=3.03, SD=1.14) 발달장애학생과 대학원이상(M=3.20, SD=1.06)의 학력을 가진 학부모, 부부와 자녀만(M=2.76, SD=1.05)으로 이루어진 발달장애학생의 가족구성원이 한 달간 가장 많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M=3.17, SD=1.071)와 소득활동이 없는 비취업인 학부모(M=2.83, SD=1.07)가 비수급자(M=2.63, SD=1.058)와 소득활동이 있는 학부모(M=2.34, SD=1.00)보다 시간을 더 사용한다고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후천적 장애는 재활이나 치료, 교육 등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학부모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학력이 높은 부모의 정보접근성이 높아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본인부담금이 없이 무료로 제공받기 때문에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학부모 중 학모가 취업을 한 경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보다는 소득활동 시간동안 학생을 돌봐줄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구성에서는 발달장애학생을 돌볼 수 있는 구성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일주일 이용 횟수와 1회 이용시간

첫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일주일 이용 횟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독립변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표 9>에 제시해 두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4~6회(69.5%)를 이용하는 발달장애학생이 가장 많았고, 30대(M=2.06, SD=0.56) 학부모가 일주일에 가장 많은 횟수로 이용하였다고 나타났다. 또한 2급 발달장애학생(M=1.96, SD=0.56)과 비수급권자(M=1.89, SD=0.56)인 학부모의 일주일 이용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학생의 활동성이 더 나은 2급 학생들과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30대, 자부담금을 지급하여야하는 비수급권자의 학부모가 일주일 동안 짧은 시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일주일 이용횟수

| 일주일 이용횟수 | N   | 백분율(%) | SD   |
|----------|-----|--------|------|
| 1-3회     | 64  | 21.0   | 0.54 |
| 4-6회     | 212 | 69.5   |      |
| 7회       | 29  | 9.5    |      |
| 합계       | 305 | 100.0  |      |

〈표 9〉 일주일 이용횟수 비교

| 구분      | N   | M    | SD    | T/F    | p    | Scheffe |
|---------|-----|------|-------|--------|------|---------|
| 1급      | 123 | 1.77 | 0.51  | -3.036 | .003 |         |
| 2급      | 182 | 1.96 | 0.55  |        |      |         |
| 선천적     | 246 | 1.91 | 0.55  | 1.403  | .162 |         |
| 후천적     | 59  | 1.80 | 0.48  |        |      |         |
| 30대 (a) | 125 | 2.06 | 0.56  | 12.636 | .000 | a>b>c   |
| 40대 (b) | 154 | 1.79 | 0.49  |        |      |         |
| 50대 (c) | 26  | 1.62 | 0.50  |        |      |         |
| 수급권     | 35  | 1.86 | 0.36  | -.460  | .647 |         |
| 비수급권    | 270 | 1.89 | 0.56  |        |      |         |
| 취업      | 87  | 2.00 | 0.747 | 1.986  | .102 |         |
| 비취업     | 218 | 1.86 | 0.473 |        |      |         |

〈표 10〉 1회 이용시간

|       | N   | 백분율 (%) | SD   |
|-------|-----|---------|------|
| 1-3시간 | 128 | 42.0    | 0.49 |
| 4-6시간 | 177 | 58.0    |      |
| 합계    | 305 | 100.0   |      |

〈표 11〉 1회 이용시간비교

| 구분    | N   | M    | SD    | T/F    | p    |
|-------|-----|------|-------|--------|------|
| 1급    | 123 | 1.69 | 0.464 | 3.316  | .001 |
| 2급    | 182 | 1.51 | 0.501 |        |      |
| 선천적   | 246 | 1.57 | 0.497 | -1.123 | .265 |
| 후천적   | 59  | 1.64 | 0.483 |        |      |
| 수급권자  | 35  | 1.74 | 0.443 | 2.271  | .028 |
| 비수급권자 | 270 | 1.56 | 0.497 |        |      |
| 취업    | 87  | 1.47 | 0.502 | -2.419 | .017 |
| 비취업   | 218 | 1.62 | 0.486 |        |      |

둘째,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이용하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1회 평균이용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독립변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표 10>과 <표 11>로 결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하여 보면 1회 평균 4~6시간 이용하며 전체의 58%에 해당한다. 또한 그룹간의 평균차이 비교하여 살펴보면 발달장애학생

2급(M=1.51, SD=0.50)보다 1급(M=1.69, SD=0.464)이, 기초생활수급권자(M=1.74, SD=0.443)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비취업인 학부모(M=1.62, SD=0.49)가 1회 평균이용시간이 더 길었다.

이는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때 활동보조인이 더 긴 시간동안 학생을 돌봄으로서 가족들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고, 짧은 시간 자주 이용하는 것보다 1회 이용시간을 길게 가지는 것이 학부모와 가족들이 필요한 시간을 확보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3) 서비스이용의 경로와 이유

첫째,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용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2>와 <표 13>에 나타난 것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의 54.4%인 166명의 학부모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동사무소나 시청 등의 공공기관의 관계자의 소개가 99명으로 32.5%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는 학생과 본인의 필요에 의해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찾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용경로에 대한 요인별로 비교분석을 하여보면 선천성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가 본인 스스로 정보를 찾는 경우가 44.3%로, 30대와 대학졸업의 학력을 가진 학부모가 30.8%와 4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구성원이 47.9%로 활동보조서비스의 정보를 스스로 가장 많이 접했다고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나타난 결과는 가족구성원의 수가 적은 가족들은 발달 장애학생을 돌볼 수 있는 인원이 적어 장애학생 및 가족의 일상생활활동에 어려움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학부모 본인 스스로 장애인가족지원이나 활동보조서비스의 정보를 직접 찾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표 12>

이용경로

|             | N   | 백분율 (%) | SD   |
|-------------|-----|---------|------|
| 본인          | 166 | 54.4    | 0.95 |
| 가족/주변사람의 소개 | 35  | 11.5    |      |
| 기관 관계자의 소개  | 99  | 32.5    |      |
| 매체 등을 통해    | 5   | 1.6     |      |
| 합계          | 305 | 100.0   |      |

〈표 13〉 이용경로 비교

| N(%)         | 본인        | 가족/<br>주변사람 | 기관       | 매체     | $\chi^2$ | p    |
|--------------|-----------|-------------|----------|--------|----------|------|
| 1급           | 55(18.0)  | 17(5.6)     | 50(16.4) | 1(0.3) | 6.173    | .104 |
| 2급           | 111(36.4) | 18(5.9)     | 49(16.1) | 4(1.3) |          |      |
| 선천적          | 135(44.3) | 23(7.5)     | 84(27.5) | 4(1.3) | 9.679    | .021 |
| 후천적          | 31(10.2)  | 12(3.9)     | 15(4.9)  | 1(0.3) |          |      |
| 30대          | 94(30.8)  | 12(4.0)     | 19(6.2)  | 0(0)   | 63.208   | .000 |
| 40대          | 62(20.3)  | 18(5.9)     | 72(23.6) | 2(0.7) |          |      |
| 50대          | 10(3.3)   | 5(1.6)      | 8(2.6)   | 3(1.0) |          |      |
| 초등졸업         | 2(0.7)    | 0(0)        | 1(0.3)   | 0(0)   | 114.943  | .000 |
| 중등졸업         | 0(0)      | 1(0.3)      | 1(0.3)   | 0(0)   |          |      |
| 고등졸업         | 7(2.3)    | 12(3.9)     | 6(2.0)   | 31.0)  |          |      |
| 전문대졸업        | 11(3.6)   | 9(3.0)      | 7(2.3)   | 2(0.7) |          |      |
| 대학졸업         | 128(42.0) | 11(3.6)     | 45(14.8) | 0(0)   |          |      |
| 대학원이상        | 18(5.9)   | 2(0.7)      | 39(12.8) | 0(0)   |          |      |
| 배우자+자녀       | 146(47.9) | 19(6.2)     | 86(28.2) | 2(0.7) | 53.841   | .000 |
| 부모+자녀        | 8(2.6)    | 12(3.9)     | 5(1.6)   | 0(0)   |          |      |
| 기타           | 12(3.9)   | 4(1.3)      | 8(2.6)   | 3(1.0) |          |      |
| 120만원 미만     | 3(1.0)    | 3(1.0)      | 3(1.0)   | 0(0)   | 53.428   | .000 |
| 120-200만원 미만 | 26(8.5)   | 7(2.3)      | 14(4.6)  | 1(0.3) |          |      |
| 200-350만원 미만 | 51(16.7)  | 17(5.6)     | 21(6.9)  | 1(0.3) |          |      |
| 350-500만원 미만 | 76(24.9)  | 8(2.6)      | 31(10.2) | 3(1.0) |          |      |
| 500만원 이상     | 10(3.3)   | 0(0)        | 30(9.8)  | 0(0)   |          |      |
| 취업           | 45(14.8)  | 18(5.9)     | 20(6.6)  | 4(1.3) | 19.030   | .000 |
| 비취업          | 121(39.7) | 17(5.6)     | 79(25.9) | 1(0.3) |          |      |

둘째,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이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14>와 <표 15>에 나타나있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여 살펴보면 232명의 학부모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 가지는 부담을 덜어주기라고 하여 전체의 76.1%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학생으로 인해 학부모와 가족들이 가지는 부담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발달장애학생의 자립생활(21%)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인식차이를 비교하여 보면 40대(38.0%), 대학졸업자(47.5%), 부부와 자녀(68.5%)로만 된 가족구성원, 소득이 350~500만원 미만(30.5%)인 학부모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학생이 성장하면서 가족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필요 요구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반적으로 가족의 부담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50대 이상의 학부모는 발달장애자녀의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를 많이 이용한다고 나타나 학부모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달장애학생의 자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며, 발달장애학생이 이용하는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보다는 학생의 자립에 대한 욕구를 나타낸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4> 이용이유

|                 | N   | 백분율 (%) | SD   |
|-----------------|-----|---------|------|
| 스스로 자립생활을 위해    | 64  | 21.0    | 0.58 |
|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232 | 76.0    |      |
|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 7   | 2.3     |      |
| 기타              | 2   | 0.7     |      |
| 합계              | 305 | 100     |      |

<표 15> 이용이유 비교

|           | N(%)     | 자립생활      | 가족부담   | 서비스의 질 | 기타     | $\chi^2$ | p |
|-----------|----------|-----------|--------|--------|--------|----------|---|
| 선천적       | 52(17)   | 191(62.6) | 2(0.7) | 1(0.3) | 13.806 | .003     |   |
| 후천적       | 12(3.9)  | 41(13.4)  | 5(1.6) | 1(0.3) |        |          |   |
| 30대       | 13(4.3)  | 108(35.5) | 3(1.0) | 1(0.3) | 40.762 | .000     |   |
| 40대       | 34(11.1) | 116(38.0) | 3(1.0) | 1(0.3) |        |          |   |
| 50대       | 17(5.6)  | 8(2.6)    | 1(0.3) | 0(0)   |        |          |   |
| 초등졸업      | 0(0)     | 3(1.0)    | 0(0)   | 0(0)   | 41.011 | .000     |   |
| 중등졸업      | 1(0.3)   | 1(0.3)    | 0(0)   | 0(0)   |        |          |   |
| 고등졸업      | 9(3.0)   | 15(4.9)   | 3(1.0) | 1(0.3) |        |          |   |
| 전문대졸업     | 13(4.3)  | 14(4.6)   | 2(0.7) | 0(0)   |        |          |   |
| 대학졸업      | 36(11.8) | 145(47.5) | 2(0.7) | 1(0.3) |        |          |   |
| 대학원이상     | 5(1.6)   | 54(17.7)  | 0(0)   | 0(0)   | 56.667 | .000     |   |
| 부부+자녀     | 40(13.1) | 209(68.5) | 3(1.0) | 1(0.3) |        |          |   |
| 부모+부부+자녀  | 6(2.0)   | 15(4.9)   | 3(1.0) | 1(0.3) |        |          |   |
| 기타        | 18(5.9)  | 8(2.6)    | 1(0.3) | 0(0)   | 23.833 | .021     |   |
| 120만원이하   | 4(1.3)   | 4(1.3)    | 1(0.3) | 0(0)   |        |          |   |
| 120-199만원 | 12(3.9)  | 35(11.5)  | 1(0.3) | 0(0)   |        |          |   |
| 200-349만원 | 22(7.2)  | 62(20.3)  | 5(1.6) | 1(0.3) |        |          |   |
| 350-499만원 | 24(7.9)  | 93(30.5)  | 0(0)   | 1(0.3) |        |          |   |
| 500만원이상   | 2(0.7)   | 38(12.5)  | 0(0)   | 0(0)   | 10.025 | .040     |   |
| 취업        | 20(6.6)  | 61(20.0)  | 5(1.6) | 1(0.3) |        |          |   |
| 비취업       | 44(14.4) | 171(56.1) | 2(0.7) | 1(0.3) |        |          |   |

## 2.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후 인식

### 1) 변화에 대한 인식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 16>, <표 17>에 제시하였으며, 독립변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변인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표 19>에 제시하였다. 이를 분석하여보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후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성분분석을 통해 적재치가 0.4이상을 가지고 설명력이 높고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들을 4개의 범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범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변화요인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도움요인( $r=.578, p=.000$ )와 이용요인( $r=.552, p=.000$ )에 대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변화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과 이용요인의 효과도 정적방향으로 기대할 수 있다.

<표 16> 변화요인의 상관관계

| M      | SD     |           | 도움     | 갈등    | 이용     |
|--------|--------|-----------|--------|-------|--------|
| 3.1515 | .83651 | Pearson r | .578** | -.108 | .552** |
|        |        | <i>p</i>  | .000   | .059  | .000   |

<표 17> 변화의 하위요인

|    | 외모<br>자신감 | 교유<br>관계 | 주위<br>청결 | 외출<br>증가 | 대인<br>관계 | 식생활<br>개선 | 위생<br>상태 | 집안일<br>부담감 | 의사<br>소통 | 건강<br>상태 |
|----|-----------|----------|----------|----------|----------|-----------|----------|------------|----------|----------|
| M  | 2.87      | 3.09     | 3.01     | 3.48     | 3.25     | 3.13      | 3.00     | 3.66       | 3.15     | 2.88     |
| SD | 1.02      | 0.95     | 0.989    | 0.96     | 0.98     | 1.01      | 0.85     | 1.06       | 1.138    | .911     |

변화요인의 차이를 비교 제시한 <표 18>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급 발달장애 학생의 학부모와 학부모 당사자가 직업( $M=3.50, SD=0.49$ )을 가지고 있는 경우, 1회에 1~3시간을 이용하는 경우( $M=3.42, SD=0.74$ ), 서비스의 질을 확보 ( $M=3.99, SD=0.67$ )하기 위한 경우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후 생활의 변화를 더 많이 가져왔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직업을 가진 학부모의 발달장애학생은 돌봄을 위한 후보조인이 있으며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보조서비스로 이용한다는 의미이므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여 생활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짧은 시간을 이용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수요자의 필요요구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상생활의 변화를 더 많이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표 18> 변화요인의 비교

| 구분        | N   | M    | SD   | T/F    | p    | Scheffe |
|-----------|-----|------|------|--------|------|---------|
| 1급        | 123 | 3.29 | 0.72 | 2.396  | .017 |         |
| 2급        | 182 | 3.06 | 0.90 |        |      |         |
| 취업        | 87  | 3.50 | 0.78 | 4.707  | .000 |         |
| 비취업       | 218 | 3.01 | 0.82 |        |      |         |
| 1-3시간     | 128 | 3.42 | 0.74 | 5.037  | .000 |         |
| 4-6시간     | 177 | 2.95 | 0.85 |        |      |         |
| 자립생활 (a)  | 64  | 3.68 | 0.71 | 17.740 | .000 | c>a>b   |
| 가족부담 (b)  | 232 | 2.97 | 0.79 |        |      |         |
| 서비스 질 (c) | 7   | 3.99 | 0.67 |        |      |         |
| 기타 (d)    | 2   | 4.00 | 0.71 |        |      |         |

2) 도움에 대한 인식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가 느끼는 도움영역에 대한 인식정도를 요인분석, 독립변인 T검정, 일원분산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표 19>, <표 20>, <표 21>에 제시해 두었다.

<표 19> 도움요인

| 평균   | 표준편차 |           | 변화     | 갈등      | 이용     |
|------|------|-----------|--------|---------|--------|
| 3.00 | 1.11 | Pearson r | .578** | -.194** | .713** |
|      |      | p         | .000   | .001    | .000   |

<표 20> 도움의 하위요인

|    | 집안일  | 개인 청결 | 화장실 사용 | 식사   | 의복 착용 | 착석 문제 | 이동   | 산책   | 보행   | 외출   |
|----|------|-------|--------|------|-------|-------|------|------|------|------|
| M  | 2.84 | 3.26  | 2.71   | 3.02 | 2.98  | 2.71  | 2.74 | 3.24 | 3.48 | 2.98 |
| SD | 1.13 | 1.34  | 1.06   | 1.20 | 1.26  | 1.20  | 1.23 | 1.49 | 1.70 | 1.43 |

〈표 21〉 도움요인의 비교

| 구분              | N   | M    | SD   | <i>T/F</i> | <i>p</i> | Scheffe |
|-----------------|-----|------|------|------------|----------|---------|
| 1급              | 123 | 3.44 | .83  | 6.436      | .000     |         |
| 2급              | 182 | 2.70 | 1.18 |            |          |         |
| 선천적             | 246 | 2.86 | 1.15 | -6.201     | .000     |         |
| 후천적             | 59  | 3.57 | 0.69 |            |          |         |
| 취업              | 87  | 3.23 | 1.01 | 2.229      | .027     |         |
| 비취업             | 218 | 2.90 | 1.14 |            |          |         |
| 120만원 이하 (a)    | 9   | 3.89 | 0.80 | 6.850      | .000     | a>d>b>c |
| 120만원-199만원     | 48  | 3.14 | 1.00 |            |          |         |
| 200만원-349만원 (b) | 90  | 3.19 | 1.13 |            |          |         |
| 350만원-499만원 (c) | 118 | 2.62 | 1.09 |            |          |         |
| 500만원 이상 (d)    | 40  | 3.30 | 1.01 |            |          |         |

이를 분석하여보면 요인분석을 통해 변화, 도움, 갈등, 이동으로 4개의 성분을 추출하였으며 도움요인과 다른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이용요인( $r=.713$ ,  $p=.000$ )이 가장 강한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갈등요인( $r=-.194$ ,  $p=.001$ )은 부적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도움요인이 증가하면 이용요인이 증가하는 정적방향의 상관이 나타나고 갈등요인은 부적인 방향으로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이다. 또한 도움요인의 하위 요인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중 보행( $M=3.48$ ,  $SD=1.70$ )에서 활동보조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급( $M=3.44$ ,  $SD=0.83$ ) 발달장애 학생과 후천적( $M=3.57$ ,  $SD=0.69$ ) 발달장애 학생, 학생의 학부모( $M=3.23$ ,  $SD=1.01$ )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은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가정의 수입이 120만원이하( $M=3.89$ ,  $SD=0.80$ )인 가정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복합장애를 가진 중증발달장애 학생의 활동에 도움을 주었으며 산책과 보행, 개인위생의 청결문제를 해결해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후천적 발달장애학생의 활동이 더 많았으며,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는 대부분 학모였기 때문에 직장을 가질 경우 타인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므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갈등에 대한 인식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와 활동보조인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 독립변인 T검정, 일원 분산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 22>, <표 23>에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재치가 0.4이상이고 상관관계가 높은 성분으로 4개의 범주요인으로 나누었고 Pearson의 적률상관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요인 중 갈등요인은 도움요인( $r=-.194, p=.001$ )에 대해 유의수준 0.01에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갈등요인이 증가할수록 도움요인에 대해 부적방향으로 작용하여 필요한 도움이 많을수록 활동보조와의 갈등이 적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갈등요인의 하위요인 중 활동보조인이 학부모의 지시사항이나 선택 등 의사결정을 무시( $M=2.55, SD=1.22$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힘든 일 ( $M=2.47, SD=1.10$ )을 꺼려하여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갈등요인

| 평균   | 표준편차 |           | 변화    | 도움      | 이용     |
|------|------|-----------|-------|---------|--------|
| 2.26 | 0.85 | Pearson r | -.108 | -.194** | -.138* |
|      |      | p         | .059  | .001    | .016   |

<표 23> 갈등의 하위요인

|    | 장애인이해 | 결정무시 | 간섭   | 힘든 일 | 의사소통 | 찾은 변경 |
|----|-------|------|------|------|------|-------|
| M  | 2.27  | 2.55 | 2.25 | 2.47 | 2.08 | 1.93  |
| SD | 1.05  | 1.22 | 1.20 | 1.10 | 1.00 | .95   |

#### 4) 이용영역에 대한 인식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영역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 24>와 <표 25>에 제시해 두었다. 이를 분석하여보면 요인분석의 성분분석을 통해 상관관계가 높은 4개의 범주로 요인이 나누어졌으며, 이 요인 중 이용영역의 요인은 도움요인 ( $r=.713, p=.000$ )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영역요인은 변화요인과의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갈등요인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이용영역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변화요인과 도움요인이 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갈등요인은 부적인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영역요인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교육과 훈련( $M=2.99, SD=1.34$ ) 등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사회활동 ( $M=2.78, SD=1.26$ )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가 선천적·후천적으로 발달장애를 가진 중증장애 학생으로 학부모들은 장애를 치료하거나 재활의 목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교육과

훈련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상생활보조나 가사활동보조의 경우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지원이 많으므로 학부모는 발달장애학생이 학교나 복지관 등에서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

<표 24> 이용영역요인

| 평균   | 표준편차 |           | 변화     | 도움     | 갈등     |
|------|------|-----------|--------|--------|--------|
| 2.36 | 1.01 | Pearson r | .552** | .713** | -.138* |
|      |      | <i>p</i>  | .000   | .000   | .016   |

<표 25> 이용영역 하위요인

|    | 일상생활보조 | 가사활동보조 | 사회활동보조 | 교육훈련보조 |
|----|--------|--------|--------|--------|
| M  | 2.15   | 1.57   | 2.78   | 2.99   |
| SD | 1.22   | 1.02   | 1.26   | 1.34   |

## IV. 논의 및 제언

### 1.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해 총 이용기간, 한 달 총 이용시간, 일주일 이용 총 횟수, 1회 이용시간 평균, 이용경로 및 이유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총 이용기간과 한 달 총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는 5~8년의 기간을, 한 달 총 110~140시간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등급, 장애발생시기, 기초생활수급유무, 설문조사를 한 학부모의 직업을 가진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용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2급의 자녀와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 당사자가 직업을 가지지 않은 경우 이용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한 달 총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자녀가 후천적 발달장애인 경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인 경우, 부부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원인 경우의 학부모가 한 달간 가장 많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본인의 소득활동이 없는 학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고 나타났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2007년 4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으로 장애인복지법상 1급에 해당하는 만 6세 이상의 아동부터 65세 미만의 성인 중 저소득층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6월부터는 3급의 장애인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그러므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는 시행시기가 10년이 되지 않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증대와 활동보조인에 대한 기준과 교육 등에 대한 연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손경숙, 2011)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당사자인 장애인의 요구나 활동보조인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체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

최병목(2010)은 활동보조를 이용하는 장애등급의 경우 1급의 중증장애인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 2급과 선천적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학생의 이용기간이 더 길다고 나타난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와 지체장애 및 40대 이상이 60%이상인 연구의 결과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고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이 가지는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최중증장애인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2급의 중증장애학생의 이용기간이 길다고 나타난 것은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최지선, 이익섭, 김재형(2010)의 연구에서는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의 학력을 변인으로 이용시간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학부모의 특성에 따른 이용현황의 분석을 바탕으로 재활이나 치료, 교육 등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학부모들의 기대와 가족구성 및 상황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이용에 차이를 나타내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학생을 위한 가족지원과 정책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일주일 이용 총 횟수와 1회 이용시간 평균에 대해 살펴보면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는 일주일에 4회~6회, 1회 평균 4시간~6시간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장애등급, 기초생활수급, 소득활동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일주일 이용 횟수에 대해 자녀가 발달장애 2급이고 비수급권자인 학부모가 이용 횟수가 더 많았고, 자녀가 발달장애 1급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비취업인 학부모가 1회 평균이용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가족의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 및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희택(2007)과 최병목(2010)은 서비스이용의 경비와 활동보조인 활용가능성에 따라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이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와 일치한다. 직업을 가진 학부모는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주돌봄인이 필요하므로 활동보조서비스만으로 발달장애학생을 돌볼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양육자의 경제활동과 경제적인 여건이 활동보조서비스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서비스가 무료이므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며 설문지 당사자인 학부모가 직업이 없으면 발달장애학생을 돌보는 주양육자가 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양육자의 필요에 따라 짧은 시간 자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의 경제 상황이나 양육자의 특성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활용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는 김윤수와 류호영(2012)의 연구와 유관하며, 손경숙(2010)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 지원정책을 변경하고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양육자의 상황과 가족구성을 고려하여 반영과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경로 및 이유를 살펴보면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는 학부모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찾았다고 답변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가족이 가지는 부담을 덜어 주기함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발달장애학생의 양육부담감을 줄인다는 최지선, 이익섭, 김재형(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학생의 장애발병시기와 연령, 학력, 가족구성원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은 구성원의 수가 적어 발달장애학생을 돌봄에 대해 가족의 부담감이 가장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강우진과 박경숙(2011)의 연구와 유관하다. 하지만 50대 이상의 학부모는 발달장애학생의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를 이용한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서 학부모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학생이 성장하고 부모가 고령이 되어 나타나는 장애인 가족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후 인식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이용 후의 인식에 대해 변화에 대한 인식, 도움에 대한 인식, 갈등에 대한 인식, 이용영역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가 느끼는 변화 영역에 대한 인식정도는 학생의 장애등급, 학부모의 직업유무, 1회 평균이용시간, 이용이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도움요인과 이용영역요인에 대해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변화요인의 인식이 높아질수록 도움요인과 이용요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당사자를 양육하는 학부모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좋은 변화가 많았다고 인식하게 되면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용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직업을 가진 학부모는 발달장애학생의 양육지원을 위해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주돌봄 서비스가 아닌 보조돌봄서비스로 이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필요한 시간에 짧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활동보조 서비스의 지원에 대해 수요자의 상황과 필요요구를 반영하여야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양희택(2007)은 자부담을 폐지하면 활동보조인을 더 많이 활용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자부담의 영향력은 달라진다고 판단되는 본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가족의 구성여건과 상황에 따른 정책이나 지원의 방향도 달라져야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가 느끼는 도움 영역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장애등급, 장애발생시기, 학부모의 직업유무, 수입정도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이용영역요인과 강한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갈등요인과는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증가하면 이용영역의 필요요인들에 대해 정적인 영향력이 증가하고 갈등요인이 반응이 감소하게 된다. 장애의 등급이 높아질수록 복합장애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행이나 산책 등이 어려워지고 개인의 위생과 청결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중증장애학생의 부모는 더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된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김성희 외, 2014)를 보면 발달장애인들의 대부분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활동보조의 도움이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결과도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가 가지는 부담감으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보행, 산책, 식사, 이동 등에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가족지원을 주장한 정민정과 김유진(2010)의 연구와 일치하며 장애아동의 가족지원은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가족기능과 구성원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이지수(2008)와 김상용(2007)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이용현황과 인식을 조사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셋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와 활동보조인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은 활동보조인이 학부모의 지시사항이나 선택 등을 의사결정을 무시한 경우와 힘든 일을 하기 꺼려했다가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갈등요인은 도움요인에 대해 부적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나 도움을 긍정적으로 많이 받았을수록 활동보조와의 갈등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활동보조의 자질에 대해 기술한 손경숙(2010)의 연구와 연관이 있다. 활동보조의 자질에 따라 수요자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애학생의 권리와 인권의 보호(이동영, 이상철, 2010) 및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갈등요인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한다.

넷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영역 중 교육과 훈련과 사회활동을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영역요인은 도움요인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용영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할수록 변화요인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만족도가 높아지며 갈등인식은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손경숙(2010)은 수많은 중증장애인이 무권리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장애학생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는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이익섭(2007)의 연구와 유관관계가 있으며 발달장애학생과 가족의 지원은 당사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인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D광역시와 U광역시 등 6개 도시의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전 지역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더 많은 지역과 전국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발달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전 장애영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를 후속연구에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이용현황과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의 요구와 만족도 등 다른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의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요구와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질적인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다른 나라와의 상황을 알아보고 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병서, 김계수 (2009). 사회과학 통계분석. 서울: 한나래.
- 강우진, 박경숙 (2011).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1(2), 146-179.
- 교육부 (2015). **특수교육통계**.
- 김상용 (2007). 발달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의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특수교육연구**, 7(3), 53-71.

-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이난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 32(3), 298-326.
- 김영숙 (2010). 장애아가족의 가족지원제도의 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3), 395-418.
- 김운수, 류호영 (2012). 사회적 돌봄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2(3), 298-326.
- 김정희, 정은주 (2012).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 비교를 통한 가족지원전략. **유아특수교육연구**, 12(1), 165-190.
- 박중엽 (2013).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 질적연구**, 7(2), 89-113.
- 박중엽 (2014).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본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재활복지**, 18(1), 181-213.
- 박중엽, 양희택 (2011).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험을 통한 활동한 활동지속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4, 1-26.
- 법제처 (2013).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법제처 (2014).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법제처 (201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복지사업안내(1)**.
- 보건복지부 (2015).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4)**.
- 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4)**.
- 손경숙 (2010).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인권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인권복지연구**, 8, 83-114.
- 손경숙 (2011).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 연구**, 8(1), 31-59.
- 송재숙, 정중화 (2009).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별 만족도 비교. **재활복지**, 13(1), 187-213.
- 심석순 (2013). 성인발달장애인 어머니의 돌봄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 조사연구**, 38, 1-23.
- 양희택 (2007).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PAS)유형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비교. **임상사회사업연구**, 4(3), 111-132.
- 연합뉴스 (2015. 1. 9). “**활동보조인만 있었어도 우리 아이는 죽지 않았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09/0200000000AKR20150109174200051.HTML?from=search> 에서 인출.
- 이동영, 이상철 (2010). 장애아동 관련 국제협약과 국내법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국제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장애아동 관련법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6(2), 223-252.
- 이익섭 (2007).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의의 및 핵심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익섭, 김경미, 김동기 (2007). 활동보조서비스 성과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1), 117-143.

21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2호)

- 이지수 (2008). 장애아동 가족의 자녀 양육부담 및 서비스 욕구. **한국장애인복지학**, 8, 71-100.
- 이채식 (2011).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실태 분석. **GRI연구논총**, 13(1), 121-144.
- 이채식 (2012).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장애인이 지각한 자기결정권, 활동보조인의 자질 및 역량, 서비스 질이 서비스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16(1), 87-112(26쪽).
- 정민정, 김유진 (2010). 장애아동 이용 서비스에 대한 가족의 욕구조사. **아동복지연구**, 8(2), 47-69.
- 최병목 (2010).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실태 연구. **극동복지저널**, 6, 99-146.
- 최지선, 이익섭, 김재형 (2010).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양육부담감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2, 31-60.
- 한승호, 정동훈 (2011). 활동보조인의 보조공학 인식 및 관련 교육 실태. **지체.중복.건강장애 연구**, 54(2), 97-113.
- Connors, C. & Stalker, C. (2003). *The Views and Experiences of Disabled Children and Their Siblings: A Positive Outlook*.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Perceptions of Parents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bout Personal Assistance Service

**Kwon, Mi Young**

Daegu University

**Hwang, Mi Hwa**

Doctoral course, Daegu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s the support of their basic daily life and independenc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esent the practical data which the support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be carried out effectively to satisfy the needs of the consumer, through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and the needs of parents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use this service. For this purpose 305 questionnaires was performed for parents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six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D and U metropolitan city. Using the SPSS 21.0 statistical program, the recognitions about personal assistance service of parents of students with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analyzed through the frequency analysis T- test, one-way Anova, and the factor analysi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st of parents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d been used personal assistance service over four times a week and over five years. Second, parents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ferred increasing of the communication with others and reducing the burden of housework, which were changed after using personal assistance service. Third, cleanliness, eating, and going out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emed to have been helpful. Fourth, parents were thinking interference and reluctance to hard work as a conflict factor of this service. Finally, social activity services and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were referred to as necessary use area. Therefore, through the analysis of satisfaction for the support that reflects the needs of parents using the PAS, the research and the policy are required for the support measures that may be presented to meet the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individual consumer.

**Key Words** : developmental disabilities, parents of students with disability, personal assistance service

논문 접수: 2016. 03. 05 심사 시작: 2016. 03. 10 게재 확정: 2016. 04. 28